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민주주의 경험 좋은 기회”

시도교육청 권고...일선학교 '환영' 교사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도움" 학생 "대한민국 역사 배우는 계기" 비상계엄 관련 보충자료 교육 실시

광주·전남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당일 생중계 자율 시청을 권고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에 민주주의의 소중함 등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민

주시민 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해달라며 '탄핵 심판 관련 생중계 TV 시청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적 방송 시청과 교무회의를 통한 결정,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학교 사정에 따라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탄핵 심판이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학급의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병관 광주 지산중 교장은 "탄핵 심판의 의의와 정치적 역사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급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동원 해남고 교장도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배울 점이 많다"며 탄핵 심판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광주 각화중은 교사들이 먼저 나서 탄핵 선고 TV 시청을 제안했다. 김혜자 각화중 교장은 "우리 학교의 핵심 교육 목표 중 하나가 '민주교육'이다.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고, 교내에서는 '전교생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역사·사회 교사들은 탄핵 선고가 중요한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안 증도중학교 김성찬 교사는 "학교 내부에서도 생중계 시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사·사회 교사로서 이보다

더 좋은 교육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역시 생중계 시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 각화중의 한 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육적 의미를 강조했다.

송원중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는 단순한 수업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탄핵 선고 생중계를 교육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생들 역시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로 여기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공문 배포와 함께 보충 자료를 통한 추가 교육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상계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주요 계엄령 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사회적 갈등 방지, 중립적인 내용 활용 등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별 자율적 시청 권고와 함께 계엄 이후 배포했던 초·중등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자료를 연계한 활용을 권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급격한 기온 변동’... 3월 이상기후 잇따라

광주기상청 '3월 기후특성' 발표 평균기온 8.6도...역대 5번째 높아 강수량도 평년 比 55%수준 그쳐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역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이상기후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8.6도로 평년(7.3도)보다 1.3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역대 다섯번째 높은 3월 기온에 해당한다.

지난달 초반부터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으나, 16일부터 19일까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평균기온이 10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순에는 이례적으로 고온건조한 기후와 함께 강풍이 이어졌고,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및 각종 화재 사고도 빈발했다. 하순동안 평균기온은 11.2도로 역대 네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강수량은 44.0mm로 평년(79.7mm) 대비 55.2%에 그쳤다.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이상기후 현상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수습기자



농협광주본부 영농지원발대식 이현호 농협광주본부장과 직원, 김순택 광주농협조합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진희 광주여대 학생처장과 대학생 및 유학생 등이 2일 광주 북구 금곡마을 주차장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현장 지원의 시작을 알리며 '범 농협 광주본부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있다. 김양배 기자

KTX 개통 21주년... 광주·전남 이용객 3배 증가

일 평균 6358명서 2만822명 늘어 누적 이용객은 1억270만명 돌파

개통 21주년을 맞은 '국민 교통수단' KTX의 광주·전남 이용객 추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1일 개통한 KTX의 광주·전남지역 누적 이용객이 1억270만명을 돌파했다.

개통 초기 당시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2시간46분 가장 소요됐고, 운행횟수도 하루 30회에 그쳤으나, 21년간 크게 개선돼 현재 1시간36분으로 단축됐고, 운행횟수도 48회까지 늘어났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KTX 일 평균 이용

객 역시 개통 초기인 6365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만822명을 기록하고 있다.

KTX의 혁신은 철도교통 이용량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요 역사인 광주 송정역의 경우 지난 2004년 당시 953명에 불과하던 일 평균 이용객이 14배 이상 늘어난 1만3809명으로 집계됐으며, 목포역 역시 1928명에서 486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KTX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고객 편의를 증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광주본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다양한 철도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준 수습기자

기저귀만 찬채 혼자 돌아다니 아이... 무사히 엄마 품에

기저귀만 찬 채로 왕복 6차선 도로를 혼자 돌아다니는 아동을 시민이 발견해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려보냈다.

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전남 여수시 둔덕동 미평파출소에 "팬티만 입고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는 집 주변 편의점과 도로를 횡단하며 돌아다니다 주변 시민들에게 발견 후 경찰에 인계됐다. 여수=이경기 기자

신고자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파출소에 찾아왔다. 경찰은 112 시스템 신고 이력을 통해 아이의 보호자를 특정해 연락 후 아이의 보호자가 찾아와 무사히 인계했다.

경찰조사결과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이 보호자가 매일 새벽까지 돌보지만 잠깐 잠든 사이 스스로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이경기 기자

“봄 맞고 싶다” 광주·전남 변호사들, 탄핵 촉구 ‘한 줄 성명’

27명 실명으로 참여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현·김성진(동명인인 참여)·류리·박인동·백동근·소병선·위서현·최목 등 광주지역 변호사 9인은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게 '한 줄 성명' 참여를 제안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자, 이를 비판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기획했다.

'한 줄 성명'은 앞서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한 줄 성

명'처럼 변호사들도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현재가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최목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결만 하셨으면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며 헌재를 향한 불만을 드러냈고, 김성진 변호사는 "윤석열도 신속히 파면될 권리를 갖는다 / 헌법 27조 3항"이라는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가 지난 1일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하자,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 최정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 사사(44)로움 없이 일일(11)이 위헌사안들을 충실히 검토하였으니, 4월 4일 11시에는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소아 변호사는 "학부 교실에서 배웠던 헌법, 하루빨리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하라"고 했으며, 김상훈 변호사는 "헌법 파괴를 기도한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통해 배제함이 헌법의 제도 설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국신 변호사는 "우리 마음도 봄을 맞이하고 싶다!"며 탄핵 결정을 간절히 바랐다.

이번 '한 줄 성명'에는 광주·전남 변호사 사회 소속 600여 명의 회원 중 27명이 참여했다. 정유철 기자

SNS 통해 만나 마약 투약 20대 남녀 '구속'

시약 검사서 필로폰 양성 반응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필로폰 0.5g 구매 후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접촉,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정승우 수습기자